

근원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생명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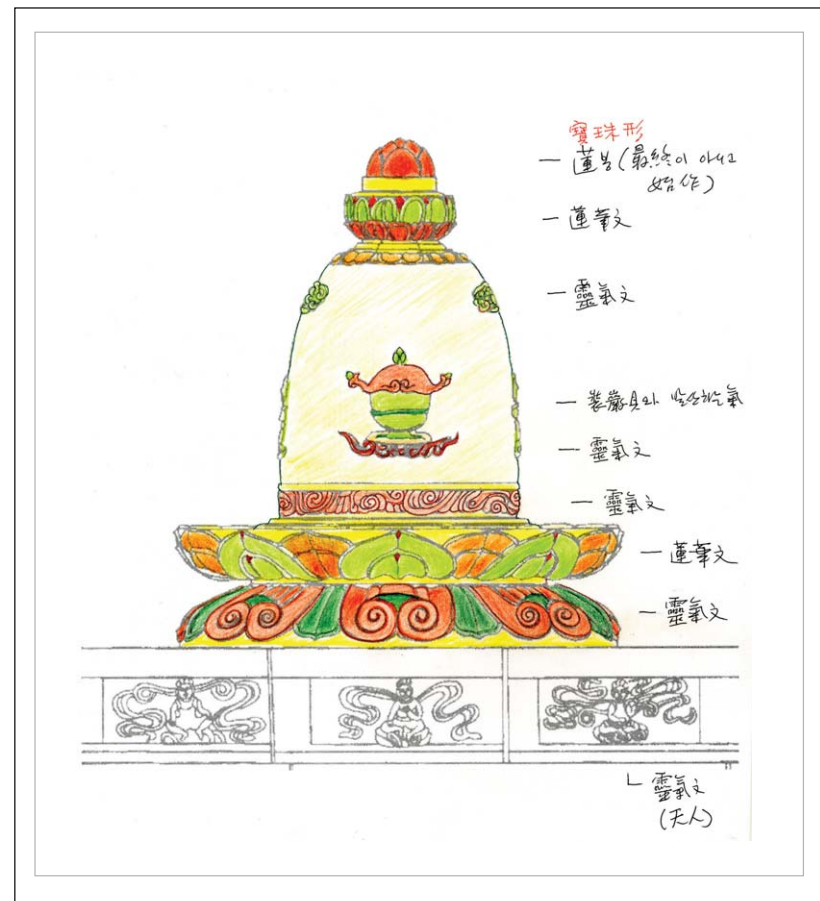
현대불교 696~698호를 통해 적멸보궁의 장대한 영기화생의 광경을 3회에 걸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적멸보궁은 금강계단에 부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강계단과 적멸보궁은 둘이 아니고 하나(不二)입니다. 법과 법제와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계단의 존재가 먼저 있었고 그 인연으로 적멸보궁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금강계단의 장대한 영기화생의 광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적멸보궁은 17세기 중엽에 지어진 건축이고, 현재의 금강계단 역시 같은 시기에 조영된 계단으로 보고자 합니다. 눈증은 지면 상 생략합니다. 그런데 자장(慈藏)이 636년에 왕명에 의해 입당(入唐)하고 643년 7년 만에 왕명에 의해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사리 100립(粒)을 셋으로 나누어, 황룡사 9층탑과 태화사 탑과 통도사 계단에 각각 두었다고 했으니 모두가 자장이 장전한 호국사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종의 개조인 자장이 계단을 조성한 까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섣덕 여왕은 돌아온 자장을 곧 전국 승려의 규율을 통할하는 승직으로는 최고인 대국통(大國統)을 삼으며 불교를 더욱 강한 정치적

계단 위에서 라기 보다는 적멸보궁 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면 도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중층 기반부의 높이는 1미터 40센티, 하대의 가로 10미터 세로 1미터, 상대의 가로 세로 7미터로 장방형에 가깝습니다. 석종(石鐘)모양 탑의 높이는 연화대좌를 합하여 1미터 80센티(탑신부 높이 1미터 34센티)의 규모입니다. 하층 기반에는 정면(남면)에만, 중앙의 배례석 때문에 기단의 중앙부를 제외하고 양 쪽에 각각 중심에 비로자나불을 조각하여두고 그 좌우에 비천상을 둔 삼존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서 북 세 면은 중심에 비로자나불을 두고 비대칭적으로 좌우에 각각 3구의 비천과 4구의 비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단 네 면의 중심부에 비로자나불이 조각되어 있는 것은 역시 <화엄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멸보궁은 그러나 법제에 틀림없습니다. 비로자나불의 대좌는 연꽃입니다. 그러나 그 연꽃 양쪽으로 녹색의 영기문이 발산하며 그 갈래에서 연봉과 연꽃이 생깁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제3영기 쌍' 모티브가 반복되어 있군요. 바로 그 영기문의 갈래 사이에서 비로자나불이 출연하여 나타납니다. 영기화생입니다. 여래의 몸은 황금색으로 칠했습니다. 비로자나-



비로자나불이, 「초록색 영기문에서 화생하는 연꽃, 사이에서 화생하며 설법한 진리가 두梵字로 요약되고 있다.

계단에서 모든 승려의 수계의식 행해져

중심부에 비로자나불 조각해 법계 상징

이념으로 삼되 계율로써 했으며, 통도사 금강계단이 그 중심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 통치에서 자장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계단에서 모든 승려의 수계의식(授戒儀式)이 행해졌습니다.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만약 불자가 수계를 원할 때 먼저 부처님의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며 계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불상이 없으니 석가여래의 진신사리 앞에서 서원을 세우며 수계하는 것이어서 가장 엄격하고 엄숙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탑의 개념보다 계단의 개념이 강합니다. 계단의 카테고리 안에 사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머리 양쪽에 있는 범자의 성음(聖音)은 비로자나불이 설한 법입니다. 화엄경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비천입니다. 비천이란 하늘을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을 의인화한 것으로 비천이 있으면 천계를, 더 나아가 법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논증하기 어려우나 간단히 설명합니다. 비천 중에 하나를 자세히 볼까요. 비천은 연꽃이 아니고, 연두색 영기문 모양의 대좌에서 직접 화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의(天衣)는 실은 옷이 아니고, 천인으로부터 발산하는 영기를 천의를 빌어 나타낸 것입니다. 한 쪽 끝은 영기 쌍이 도르르 말린 모양이고 공간을 한

것 활용하여 천의자락을 길고 역동적인 영기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천의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 영기문도 있습니다. 석가여래 사리탑과 함께 중층 기단의 도상을 채색하여 전체를 보면, 사리탑의 장대한 영기화생의 장대한 광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영기가 꿈틀거리는데 가운데 사리탑이 우리 앞에 출연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탑은 모두 사리탑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계단의 석가모니 사리탑'이라 불러야 합니다. 출연하여 나타난 탑의 형상 역시 대단합니다. 먼저 영기 쌍 무리로 이루어진 영기문에서 연꽃이 화생하고, 그 위

에 탑이 나타납니다. 탑은 범종모양입니다. 범종은 신체(神體)이니, 즉 부처님의 몸입니다. 아래 부분에 역동적인 영기문이 둘러져 있고, 사리를 담은 사리 장엄구가 있는데 그 형태의 모든 부분이 영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경 양쪽에 역시 '제3영기 쌍'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들이 영기화생하며 천계 혹은 법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범종의 상징을 파악하게 되면 범종모양 부도의 상징은 곧바로 풀려집니다.

탑의 정상에는 연꽃으로 받쳐진 보주모양 연봉이 있습니다. 흔히 보주로 정상을 마감하고 매듭지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연

봉이 막 피려고 합니다. 이런 예는 없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정상에 입을 열어 막 피려는 연꽃모양 영기문으로 표현하여 여기서 '법' (일체)이 나타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꽃도 영기문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형미술에서 보는 모든 연꽃은 영화(靈化)된 연꽃입니다. 모든 연꽃이 영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통도사 금강계단이 얼마나 장대한 영기화생의 광경을 보여주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적멸보궁과 금강계단에는 조각-회화-건축-공예 등 모든 조형에 '제3영기 쌍'이 도상에는 제1, 제2 영기 쌍 모양이 포함되어 있다의 모티브가 한 없이 반

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道)를, 비로자나불, 영기를, 즉 "일체를 탄생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이 한없이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법계에 바로 그 근원적인 생명이 충만하다는 장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로써 적멸보궁과 금강계단의 영기화생의 광경을 자세히 풀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특강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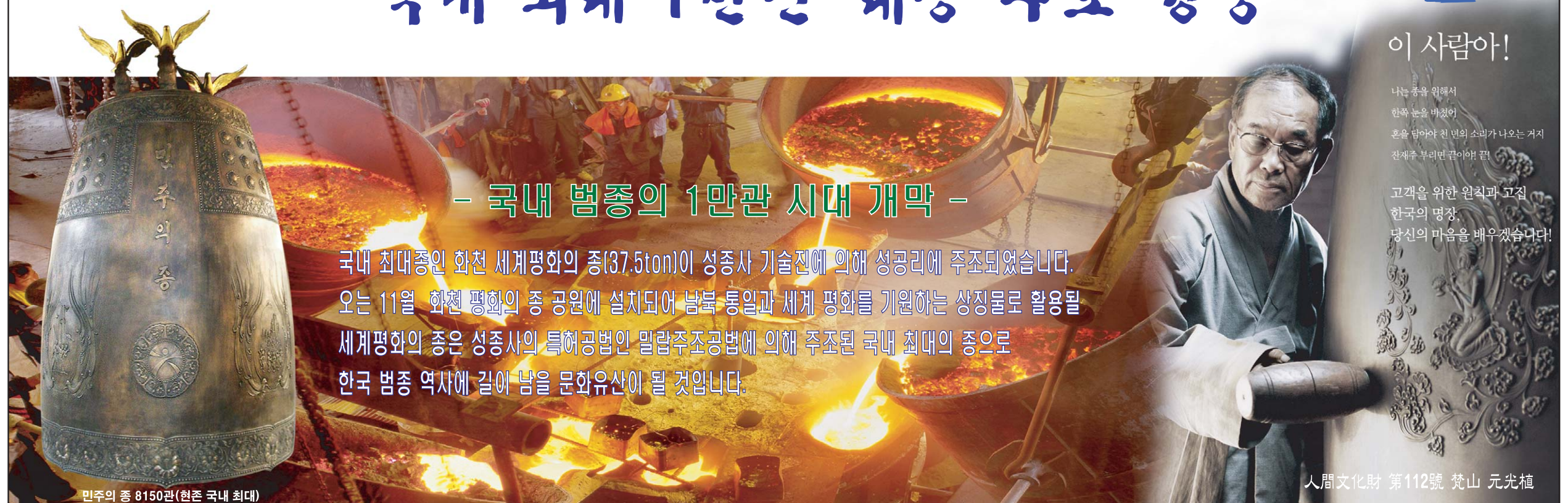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 국내 범종의 1만관 시대 개막 -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조되었습니다. 오는 11월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 설치되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활용될 세계평화의 종은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주조된 국내 최대의 종으로 한국 범종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만족 눈을 바쳤어
흔들 위하여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저지
전체주 부리면 끝이 없네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人間文化財 第112號 梵山 元先植



◆ 전시관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a.co.kr / E-MAIL: sungjong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

